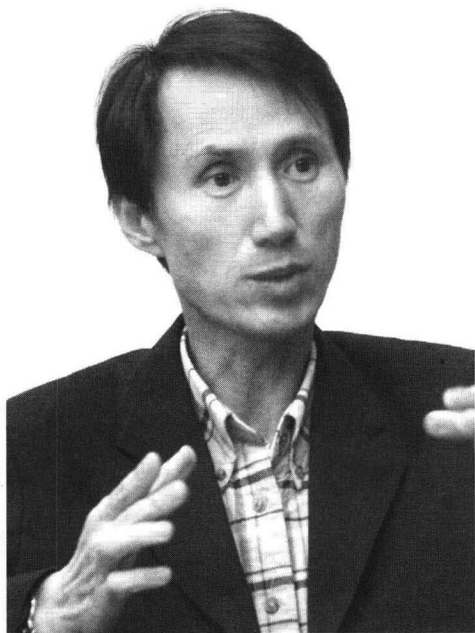


한철희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산업발전특별위원장

“12월 정기국회 개정 입법 위해선 범출판계 힘 결실”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출판산업발전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돌베개 대표)은 출판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 설립을 위한 출판계의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한층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출협은 최근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12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출판및인쇄진흥법 개정안에 진흥위 법정기구 설립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진흥위 설립에 대한 출판계와 문화계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진흥위 설립에 대한 출판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정 입법을 가능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일정이 촉박해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참석자들이 진흥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물론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설립 초기에 각 이해당사자의 관점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의 지적처럼, 추진 과정이나 절차에서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출판 선진화 위해 출판진흥위원회 꼭 있어야”

‘12월 정기국회 법제화 목표’…(사)대한출판문화협회 공청회 개최 ‘중장기 출판정책 연구’, ‘유통구조 개선’, ‘출판이슈의 정책적 소통’ 등 역할 주문 ‘설립 위해 범출판계 하나된 목소리’ 강조

지난 11월 3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사)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이하 출협) 주최로 ‘(가칭)한국출판진흥위원회’ (이하 진흥위)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출판계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진흥위 설립 논의를 본격화한 자리였다.

김인호 출협 부회장(한길사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올 3월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출판진흥법)의 국회 상정을 계기로 진흥위 설립을 준비해왔다”며 “출판진흥의 주체가 없는 현행 출판진흥법에 별도의 법정기구 설립 규정을 두기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협 출판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출판산업특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진흥위의 기구 구성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제시했다. 진흥위원은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9명(임기 3년)으

로 구성하며 사무국을 두고 약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판계 개별 단체 노력보다 총체적·제도적 뒷받침 중요’

한철희 출판산업특위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출판정책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의 운영방식을 참고해 진흥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은 “출판산업은 전체 문화산업의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근대적 유통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공공도서관 실태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실정”이라며 출판산업 진흥정책을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진흥위의 성격 규정을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판계 내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나로 모으는 한편,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관계자들, 각종 문화단체 및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을 만나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고 설득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내야 하는 일인 만큼 출판산업발전특위 차원이 아닌 출현과 출판계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위 필요성,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

한 위원장은 "진흥위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익단체들과는 달리, 법제화된 공공적 성격을 띤 기구로서 출판계와 정부의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공적 기구"임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출판계 안팎의 신뢰 속에 공공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도서정가제 등 기존의 현안에 대해 "이들 역시 진흥위 설립 추진과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동시에 모색해 갈 것"이라며 "진작부터 출현 차원에

서 이들 현안의 문제점을 개선,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기구로서 진흥위 설립 추진은 출판계의 오랜 염원이자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출현은 출판계의 의지를 모아 12월 정기국회에서 진흥위 설립 입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출판진흥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출판계 내부의 하나된 목소리와 의지가 중요하므로, 모든 출판인들의 대승적인 협조와 단합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출판계 각 단체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출판진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출판계가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진흥위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지난 달 출현에서 열린 한국출판진흥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청회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진흥위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흥위가 맡을 주요 과제로서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연구, 출판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남북 출판교류사업 등을 제시했다.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김기태 교수 역시 "다른 문화 분야는 영진위 등 문화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법정 진흥기구가 설립·운영되는 등 해당 문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 결과를 가져왔다"고 진흥위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진위 김혜준 사무국장은 "진흥위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정부의 공적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산업적인 인프라 조성은 해당 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출판계의 일치된 목소리를 주문했다.

진흥위 설립, '공익추구 및 사회적 합수관계 먼 사안'

이상호 국회의원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업계의 '이슈 파이팅'과 출판산업 단체와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개별 단체의 노력보다 체계적인 정부의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장의 공정화·활성화를 위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진흥위를 중심으로 출판업계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진흥위는 내부 단체들 간의 입장 정리가 이뤄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임을 전제, 출판계의 시급한 현안인 완전도서정가제 추진 등에도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도서평론가 이권우씨는 "진흥위가 업계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범문화적·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100여 명이 넘는 출판사 및 서점 대표들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 진흥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출현은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향후 구체적인 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출판계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 수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취재 김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